

투데이 칼럼

북한 지방경제

최근 감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시인했다.

지난 1월 15일, 평양 만수대의 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인민들에게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이십 굶하기 십", 북한식으로 '이십 굶 십'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지방 발전 정책을 제시하고 김 위원장 자신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군인들의 대거 투입까지 명령하면서 강력한 지방 발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민들의 호응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에 성과가 달려 있다.

'이십 굶 십' 정책은 해마다 20개의 시와 군에 현대적인 공업 공장을 지어, 10년 안에 전국 주민 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여겠다는 내용이다. 지방 공장 건설 등에 군인들의 대대적인 투입이 결정됐고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도 구성됐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수도 평양은 더욱 웅장하고 화려해졌다. 각종 거리를 중심으로 들어선 고층 건물이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바꿔 놓았고, 현대식 편의시설들도 속속 들어섰다. 하지만 지방의 사정은 나아지



정복규
논설위원

지 않았다. 아직도 재래식 난방을 사용하고 있어 굴뚝에서 부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들이 많다. 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빨래는 물론, 생활용 수도차 강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력경쟁'을 내세워 지방 공업의 자금자조를 강조한다. 원자재가 부족하고 교통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의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십 굶 십' 정책 역시 결국 성과를 내야 하는 주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력경쟁으로 성과를 낸 지역으로 강원도 김화군이 부각되고 있다.

이곳도 2020년 수해로 큰 피해를 겪었다. 그러나 주택은 물론 공업품 생산 공장까지, 자체적인 힘으로 현대화 재건을 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선 만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기반 시설은 충분히 갖추 수 있을 거란 평가다.

또 과거처럼 잘 된 사례를 모두가 무조건 좇아가는 것이 아니다. 각 지방 형편에 맞게 적절한 개발 계획을 짜서 실행하도록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회의적인 지적도 많다.

기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과업도 남아 있다. 지방공장 건설과 운영에 충분한 재정·설비·자재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국방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만큼 군 인력 정도만 제공할 뿐, 지방 건설에 투입될 예산은 많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북한은 국방 분야의 현대화 그리고 첨단 기술화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앞으로도 인민생활 특히 지방경제는 중앙 정부가 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때문에 지방 정부에 더 큰 할당량을 주면서 그 대신 책임을 지게 하는 시스템 가동을 하려

고 한다.

또 정책 자체가 좋을지라도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북한 주민들을 독려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미 시장이라고 하는 경제활동 공간이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시장은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과거와 같이 계획경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했던 방식과 다르다.

그만큼 주민 통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북한 주민들도 시장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시장을 통해서 생활양식이 많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옛날에 북한 주민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의식의 충돌과 사회 질서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런 불만들을 잠재우려면 주민 개개인의 삶이 향상되어야 한다.

북한 당국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를 내려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했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은 소유권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다. 소유권이 곧 전체주의를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라고 본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경제를 직접 책임지고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현실이 될지 아니면 물거품으로 사라질지 이복이 집중된다.

사설

장바구니 예코백 필수

요즘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 서 테이프와 노끈이 점차 줄고 있다. 불편을 호소하던 모습은 많이 사라졌다. 대형마트 주요 고객인 중장년층은 지식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에 동참하겠다고 노끈과 테이프를 갖고 다닌다.

젊은 세대는 예코백·백팩과 온라인 배송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마트 등 대형마트 4사는 지난 8월 환경부와 자율협약을 맺었다.

새해부터 자율포장대에서 종이상자 포장 때 쓰이는 테이프와 노끈을 없앴다.

동시에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캐리터 일러스트 컨버스백부터 스포츠백백, 꽃무늬와 형광색의 쇼핑백, 코스트루 등 타사 대형 쇼핑백 등이 등장했다.

유모차 주머니나 유치원생 팔가방까지 활용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종이상자 사용이 어려워졌지만 큰 불편함은 못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불이나 휴지, 세제 등 크거나 무거운 제품들은 온라인 배송을 하면 된다"고 말한다.

젊은 세대는 식품품 부문에 있어 e커머스 쇼핑을 늘려가는 추세다. 식품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체를 압도한다. 온라인에서 생수를 구매해먹는 비중도 최초로 10%를 넘겼다.

주방세제와 세탁세제도 각각 19.2%, 13.8%에 달한다. 앞으로 식품·생활용품 온라인 쇼핑액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대형 문고 계산대에서 예코백과 큰 가방들을 이용한다. 소액이지만 불필요한 봉투를 사는 대신 쇼핑백을 챙기는 것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 모두가 의식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 마트 박스는 무분별한 테이프 사용으로 재활용이 어렵다. 편리함보다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고민을 하고 적극이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

노인취업 협약에 거는 기대

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노인회관에서 전주시 주택관리공단 노원대단지 6개 센터장 및 관리소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지속적이고 원활한 업무 협조와 정보 교환을 하기로 했다.

세부 협력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위해 일반 및 별관 우유팩 등을 재활용하고 있다. 폐배터리와 폐건전지 등도 모아 전달한다.

자원 선순환 사업단의 수요처 참여를 늘리는 일이다. 장바구니 재사용을 위한 예코백 매니저 사업단도 활용하고 있다. 김창수 대한노인회 전북광역취업지원센터장은 "어르신들은 연륜과 경험, 전문지식은 물론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고령자가 얼마든지 담당할 수 있는 저임금 단순 노무직까지도 고령자를 기피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노년의 일터가 다양하고 많아질수록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득 보장이 필수다. 공식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인 취업을 위해 정부와 사회, 지자체가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정년을 연장하고 민간 기업의 노인 인력 의무 고용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노인 맞춤형 녹색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때이다.

갈수록 상당수의 어르신들은 초고령사회에 직면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노동 현장에서는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번 협약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노인 취업 현장 상담 등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 알선 등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 먼저 구인업체 방문 및 구직자 만남의 날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청소년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 지역 공동체 협력 활동 절실

최근 언론에서 소개되는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가 있지만 인터넷이 발달 하면서 청소년들이 도박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성인들보다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성인 사이트와 달리 성인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불법 도박 사이트는 다른 곳에 비해 가입 절차가 간단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도박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불법 도박은 참여 방법이 쉽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SNS상 노출

빈도가 높고 접근이 쉬운 불법 인터넷 게임 등을 통해 도박을 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 이용자들의 42.2%는 불법 인터넷 도박, 52.4%는 불법 스포츠도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이 이같이 도박에 중독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박의 게임적 요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자체로 강렬한 재미를 가지고 있으며 승리하게 되면 보상을 얻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얻는 쾌감, 급진적 이득 등이 도박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며 원치 않더라도 친구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또래 집단을 따라 자연스럽게 도박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에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온라인을 통한 불법 도박이 확산되면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금리의 사채까지 대출을 받고 있어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캐주얼 게임, 스포츠 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며 접근 통로가 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 방송 플랫폼

를 통한 광고 등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특별 예방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 활동에도 청소년 도박 예방을 경찰에서만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만큼 청소년의 도박 중독은 혼자 노력해서 해결 할 수 있는 간단 한 문제가 아니다.

평생을 강박적인 행위에 빠뜨리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적, 국가적, 개인적인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예방 활동을 위해서 일선 학교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교육지원청 등 사회단체와 유대를 통한 청소년 유관기관 과 지역사회 공동체 협력이 절실하다.

정봉조 김제경찰서 경무계장겸경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